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수업 믿음의

AT Jones와 EJ Wagoner가 쓴 Lições de Fé 책에 대한 서지 검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머리말

지난 세기 말에 주님은 EJ Wagoner 목사와 AT Jones 목사를 통해 SDA에 정의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1888년 총회와 그 이후 10년 동안 강조되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E. 화잇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큰 소리가 들불처럼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빛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1895년에 E. 화잇은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자들과 그들이 가져온 기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흥분일 뿐, 성령도 아니고 하늘의 늦은 비의 소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먹지 않는 불신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01년에 그녀는 불복종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전도 505).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그너 목사와 존스 목사를 통해 보내신 정의의 메시지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빛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면에는 이 목회자들이 귀중한 기별을 가지고 파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96페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목사들을 통해 주신 빛이 수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주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 그분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 서점에서 Wagoner 목사님의 책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정의와 좋은 소식을 오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더 많은 자료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삶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영속적인 의를 가져오기 위해 빛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여 그분의 성령을 마시고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John and Elora Ford – 1977년 11월 1일 - 원본 출판사: Paci ic Union College Press (CA)

색인

1 - 믿음으로 생활하기..... 07

2 - 신앙에 관한 교훈..... 15

3 - 신실한 말씀..... 21

4 - 당신은 사악한 사람입니까?..... 28

5 - 영원한 복음.....33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6 - 신앙과 율법..... 41
7 - 은혜인가 죄인가..... 55
8 -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71
9 -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83
10 - 완벽해지세요.....97

1 - 믿음으로 생활하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이 진술은 사도가 복음에 관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에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며,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전사한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이며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은 사람들을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 즉 정의로운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요 마지막에는 믿음입니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기록하고 그분의 계신 모습을 볼 때까지는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사도는 하박국서(2:4)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분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에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불완전한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의인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믿음의 예를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히 11:4). 또한 노아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로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 11:7) .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으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어야 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많은 사람들은 전생의 죄에 대한 용서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 행사했던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과정을 시작했다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일부 사람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둘째로 자신의 능력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할 말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반복된 공식 외에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지난 경험,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 경험했던 기쁨입니다. . 주님을 위해 사는 기쁨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기쁨을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언어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음의 결론적 설명에서 이 믿음의 주제를 동일한 영광의 왕국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5, 6).

에녹이 인도함을 받은 것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주장이 사용되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간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의 내용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일하게 유효한 규범, 즉 하느님의 완전한 정의와는 무한히 거리가 멀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든 좋은 것이지만, 과거의 죄의 짐을 덜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은 시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생활 중 하나였으며 오직 실패만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낙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실패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누구라도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라도 매 전투에서 패배하면 결국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여, 그들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둘 수만 있다면 그들은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 4:4)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는 자니라. 당신은 자신감과 패배의 슬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모든 약속은 승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니라"(계 3:21).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계 21:17). 승자는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다.

상속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제 승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아와 이기적 방종에 대한 승리입니다. 싸우고 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적인 욕망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합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밖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승리가 있을 때 끊임없는 싸움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전투를 계산하는 사람은 다시 전장에서 자신을 찾고 싶어합니다. 알렉산더의 지휘 하에 패배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항상 새로운 전투를 갈망했습니다. 오직 그의 정신에만 의존한 각각의 승리는 그의 힘을 증가시켰고, 패배한 적들의 힘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투쟁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바울의 말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자.
2:20). 여기에 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속에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시편 필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은 무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왜? 천성적으로 적들보다 더 많은 힘과 용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렉산더의 지도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은 그의 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잦은 패배를 겪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적군에 당황하여 후퇴하고 있을 때, 윈체스터에서 셰리던의 존재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병사들은 흔들리는 군중이었고, 그가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적의 함대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승리한 군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의 장군에 대한 칭찬과 기쁨의 표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것과 동일한 정신으로 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주요 적과 마주했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더 나쁜 상황에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변함없이 승리하고 승리하기 위해 행진합니다. 오, 만일 그분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계속되는 승리를 통해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빛에.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팔에 달려 있으며 그분의 강력한 힘이 그 일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 안에서 역사하여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한복음 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굴복시키고 교만, 시기,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는 성령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 즉 그러한 일을 스스로 원하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현재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오는 파도 사이에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신성한 힘은 그가 마치 단단한 바위를 밟는 것처럼 쉽게 걸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마치 자신이 위업을 달성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는 두려움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그에게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고, 두려움은 그를 파도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칠 일 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히 11:30).
왜 그런 말이 쓰여졌습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롬 15:4). 그 의미는? 어쩌면 우리는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우고 요새화된 도시를 점령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그러나 육신에 보이는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승리는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성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전투에서도 그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합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고후 10:3-5). 당시의 용감한 영웅들이 믿음으로 패배시킨 것은 육체적인 적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읽을 수 있는데, 그들이 "왕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여 약속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격려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히 11:33, 34). . 그들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바뀌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간난? 아니면 괴로움? 아니면 박해? 아니면 배고픔? 아니면 과도한 노출? 아니면 위험? 아니면 죽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 8:35,37) 시대의 징조, 1889년 3월 25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 - 신앙에 관한 교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14:23)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신은 1898년 10월 18일
Review의 첫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따라서 Review의 매 호마다 같은 칼럼
에서 믿음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잡지를 읽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
떤 지식보다 더 필수적인”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8년 11월 29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
다. "그러나 지금 . 모든 믿는 자에게”(롬 3:21,22).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지금
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실하시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을 때, 그 진술은 진실입니다. 그와
지금 당신 안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도 이 땅에 믿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루리라.” 요한복음 15:7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로마서 14장 22절. 만일 당신이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 스스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
은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느
니라.” 로마서 3:21,22.

· .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 ·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전가되었느니라.”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당
신은 하나님의 의를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죄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믿음으로 말미
암는 화목제물로 그를 그의 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관용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형벌 받지 아니하시고 그
대로 두셨음이라.” 로마서 3:24,25. “존재”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너희 죄 사함을 위한 의가 너희에게 선포되었으니 이제 믿으라.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이는 자기도 의로
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6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족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시겠습니
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로
마서 4:5.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3 “또 그를 위하여만 고려되었다고 기록되었느니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또한 우리를 위함이니 이 의로 여기심을 우리에게도 의로 여기셨으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23-25 및 5:1.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당신 안에서 사실이 되도록 허용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ROM. 1:17.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하며,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새 탄생" 경험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거하는 것 외에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며, 이는 단지 그분 자신의 의로운 뜻을 전사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 즉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은 사람들을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 즉 그들의 삶에 나타난 율법의 의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요 마지막에는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야 하며,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패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감과 패배라는 형편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승자에게!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모든 약속은 승리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21.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극복할 승리는 육신의 정욕(베드로후서 2장 18절)과 안목의 정욕(시편 101장 3절)과 이생의 자랑(요일 2장 16절)을 이기는 것이며 , 자아와 이기적인 방종에 대한 승리. 능력의 비결은 여기에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는 마음속에 살면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4. 믿음은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있으며, 그분의 탁월한 능력이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5. 하나님의 종들은 연약함에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굴복시키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여 연약함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들은 힘을 얻어 전쟁에서 강해지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1:33, 34.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하늘과 땅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고 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악인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5-7.

백부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 말씀만 명하시면 내 아이가 나으리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같은 믿음은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요.” 마태복음 8:6-10.

3 - 신실한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자체가 그것이 선언한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씀”(딛 1:9), 곧 믿음이 가득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선언된 것만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창세기 1:3 “주의 말씀을 나타내면 밝혀지나이다.” 시편 119:130.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이루어졌느니라.” 창세기 1:6, 7.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것을 성취하는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 말씀이 선언한 것을 성취하기를 그 말씀 자체가 기다리고,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 동일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자라게 하는 실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히브리서 11: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곧 하나님께로서 난 말씀을 받았으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3.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에베소서 2:8).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3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8 믿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네[사탄]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15). 죄가 들어온 후에는 더 이상 사탄과의 “적의”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죄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의”가 생겼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탄. 이제 모든 영혼은 사탄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로마서 7:14-25.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그것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되는 행위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하면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 포악한 자의 길에서 떠났나이다.” 시 17:4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11.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일을 행하는 신성한 방법은 세상이 창조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재창조되었고 새로운 탄생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느니라. “이제 하늘과 땅이 그 한 말씀으로 보존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3:7.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느니라”(유 1:2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4절. 온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4:12. “너희 속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곧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니라.” 야고보서 1:2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서 3:16.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5.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의 유지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1.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5, 6.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상상함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오직 믿음으로만 제한하셨습니다. 결과는 오직 말씀으로 성취되도록 제한하셨고, 말씀이 말한 것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이미 죽은 자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이 나왔느니라.” 히브리서 11:12.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9.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창세기 22:18; 21:12.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조화시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술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으며, 주님께서 “구절을 조화시키시거나” “그 구절을 설명하시도록”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면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곳을 보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당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 아이와 나는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2:4,5.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기와 함께 갔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삭이 재에서 깨어나 그와 함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것이 네 씨라 부르리라” 하셨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만 믿었고, 이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17-19.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23.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우리 주를 믿노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서 4:24, 25.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행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과학입니다.

4 - 당신은 사악한 사람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로마서 4:5.

그것이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째,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소유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선하심과 성품)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못된 길로 빠져 하나씩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0, 11.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나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공의와 구원이 온전하고 값없이 보장되게 하시나니 누구든지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악한 사람. 칭의를 위한 유일한 요구 사항, 유일한 준비는 사람이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고 믿고 심지어 그것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믿는 것은 너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너무나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당화하실 때까지 기다릴 용기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 잘못된 개념은 행위에 의한 정당화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믿는다고 공언함으로써 사실상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지 않다면 의로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32.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개인적 성취의 일부 측면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한, 믿음도 없고 믿음을 위한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믿음이 작용하게 되며, 우리가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값없는 칭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음으로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죄 많고 불경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3:9-19.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자 그의 긍휼이 많으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하 24:11-14.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외인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흠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라” 골로새서 1:20-23.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이렇게 의롭게 되어서는 안 됩니까? 당신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에게는 믿음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22.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통해 확고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한 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브리서 10:38), 그러므로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로마서 14:23).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의가 이루어지도록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용으로 이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5 그러므로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는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5:18 그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의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6.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육체의 정욕들이며, 그것을 극복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이단” , 질투, 술 취함, 폭식,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 . .”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죄를 드린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주실 것입니다.

묻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해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신 자유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 누가복음 11:9, 10.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2.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30.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사도행전 5:32.

“믿음에서 나니 이는 은혜에 속하게 하려 함이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를 믿었습니다. 로마서 4:16-17.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10.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게 되느니라.

5 -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갈 3:8).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믿는 직접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믿음이니라. 이 약속이 인간에게 성취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과 창조하고 살리는 능력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한 우리를 위함이라 이 일이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의로 여겨질 것임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3-25.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았고, 같은 목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에게는 맹세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맹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시려고 자기를 맹세로 맹세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셨음이라" 제안된 희망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피난처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17, 18.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로 확증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영혼아, 너희 죄가 너무 많고 너희가 너무 약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25 당신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9 그리고 영감받은 기록은 히브리서 11:34에서 "그들의 약함을 힘입어 강함을 준" 사람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운영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세상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없이하시고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27-29.

아브라함은 어떻게 칭의를 얻었는가? - 자신의 유기체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꺼이 돌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몸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동일한 말씀이 너희 속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하여 당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으며, 그 안에는 말씀하신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전할 것을 미리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12:49, 50.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9,10.

창조 대 진화!

창조는 즉각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가 아닐 것입니다. 즉각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진화이다.
진화는 창조에 직접적으로 적대적이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당신의 믿음.” 마태복음 8:13 말씀을 하신즉 말씀이 즉시 그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나병환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깨끗해지십시오! 즉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마가복음 1:41, 42 참조).

오늘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진화론자인가, 창조론자인가? 지금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에 당신 자신의 행위를 더하고 나서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당신은 진화론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당신에게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믿음의 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신실함을 바탕으로 새 창조가 당신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 — 모든 선하고 은혜로운 것, “순결한 마음”.

준비!

성경은 당신과 내가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계시록 19:9)에 함께 불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17 나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불러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거짓말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좋은 소식을 창조하고, 태양이 정해진 코스에 머무를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대하여 “오라 모든 것이 예비되었느니라” 하면 저희가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을 위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오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부르심을 받은 결혼을 준비하도록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 역사에서 발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그분의 백성 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표를 주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것, 좋지 않은 것에는 인을 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의를 마치 정의인 것처럼 봉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마음에 기록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승인의 도장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창조적인 말씀이 당신의 마음 속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세상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진화는 불신앙입니다. 창조는 기독교이다. 144,000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거듭나는 창조론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르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마음속으로 구하지 말라. (즉, 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모셔오시려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6-9.

믿다!

빌립보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간수는 지진이 난 후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30, 31.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겠느냐?" 그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였습니다. 요한복음 6: 28, 29.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며,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습니다.

6 - 신앙과 율법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활동적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실제 기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사야 51:6, 7)이며, 우리는 이를 추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마 6:33).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에 남아 있을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9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먼저 법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3:31.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에게 무효로 만드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아무리 율법을 짓밟고 멸시하든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순종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 그는 믿음과 불순종은 양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법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공언하더라도 그가 범법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는 율법을 마음에 굳게 세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3.

"주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한 은혜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예수)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3-6.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의 안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며 그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4, 5.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2:20, 26.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날 것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7.

신앙과 법

"율법의 마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이니라." 로마서 10장:
4.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율법이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 예수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취소하러 온 것은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17.

(2)예수께서 예언하신 사역은 “율법을 크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2:21.

(3) 예수의 성품은 율법과 동의어였습니다. “오, 내가 당신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맙소사; 그렇습니다. 당신의 법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시편 40:7과 8.

(4) 율법은 하나님의 의요, 그의 정부의 기초이며,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17 참조.

로마서 10장 4절의 “끝”이라는 단어는 “종료”를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는 계획, 목표, 목적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로마서 13:10)임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목적(최종 결과)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할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서 난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2-4.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최종 결과, 즉 성화, 즉 “여호와께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날은 녹음될 거예요. . . 여호와께 거룩하니 스가랴 14:20.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졌던 것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5 “주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즉, 속에 있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악인을 의롭게 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생각)에서 죄를 영원히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마태복음 1:21)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십니다(마태복음 1:23).

바울은 모세가 율법에 관해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5 예수께서는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17.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한 계명을 내가 보니 그것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완전한 인격을 창조하여 생명을 부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한 번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이후의 어떤 순종도 그의 성품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의와 생명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24.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1.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으니(하나님의 의), 만일 사람이 항상 그랬더라면 이것이 바로 인류였을 것임이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순종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짓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1-4.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병든 것”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톱은 썩은 나무를 튼튼한 기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당신의 과거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를 바꿀 수 없고, 당신의 과거의 죄 기록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법은 단지 결함을 지적할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죄로 인해 부패한 썩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은 완전한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당신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는 당신의 삶에서 그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최종 결과입니다. 예수께서는 “해소되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대제사장이 될 권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7:16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과 같이 그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2, 3.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누리는 이 생명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또한 에베소서 3:16과 17을 참조하십시오. 신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신자를 세상의 빛으로 구성합니다. 자신의 빛이 아니라 내면의 빛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합니다. 이 살아 있는 말씀의 빛은 그리스도인의 동기와 행동의 원천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시 36:9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요한계시록 22:1.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느니라. 듣는 사람은 말하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17.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 53, 54.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육체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63.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감받은 말씀 안에 거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37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 미가 7:8.

행위가 아닌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 9.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왜 법인가? 작품의? 아니요, 오히려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3:27, 28. 복음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선행은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므로 우리도 완전하려면 그분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리는 유한합니다. 다섯 살 난 어린 소년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 28, 29. 믿음은 행동합니다. 갈라디아서 5:6, 데살로니가전서 1:3. 그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에베소서 3:17)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9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8.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삶에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창세로부터" 선포된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또 같은 곳에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4:4, 5 -
즉,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4:3-5. 그러므로 토요일, 즉 한 주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고 이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0:12, 20.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행위에 의한 칭의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믿음에 의한 칭의의 표와 인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를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표입니다. 주일의 일곱째 날 외에 다른 어떤 날도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의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일곱째 날의 신성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남은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당신이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9.

하나님의 성화

누구든지 다른 날을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참된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믿음의 표시이며, 그리스도의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니라 그러나 유대인과 같이 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안식.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 그들 자신의 안식일 규칙(그들 자신의 말)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습니다(오늘날 일요일 준수자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유효) 로마 교회의 전통 – 행위에 의한 구원 – 사람들 위에 있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이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거룩함의 길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충실성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 그분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 되고, 태초에 행사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말씀을 기념하는 것이 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로운 성품을 닮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진화론자라면 당신의 안식일 준수는 사기가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3:11; 히브리서 10:38.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창조,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8-11.

우리는 스스로 좋은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 왜 시도하는가? 창조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일이 아니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창조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너희에게 이 착한 행실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당신은 “육체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솜씨가 될 것입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수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7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의 독생자이시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9.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한량 없이 주시는도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느니라.” 디도서 2:11.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 . 에베소서 4:12, 13.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13. “우리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1.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7 - 은혜인가 죄인가?

은혜의 왕국에서는 선을 행하기가 쉽고, 죄의 왕국에서는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은혜가 죄보다 더 강력하지 않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짓는 것만큼 쉽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죄의 노예로 삼는 만큼 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권세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죄는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20.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3.

죄는 사탄에게서 유래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8 죄보다 은혜에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탄의 능력으로 죄를 섬기는 것만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15.

우리는 의로 다스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가 모든 일에서 형제들과 같아지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히브리서 2:17. "모든 일에"는 "모든 일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우리처럼 약했습니다. 요한 5:30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시고 정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선을 이루시는 것은 언제나 쉬웠습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모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13. 예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로새서 2:9).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의(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취합니다(요한계시록 14:4).

어린 양은 그의 추종자들을 "성도의 인내"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계 14:12)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사탄의 세상]은 어린양[예수님과 그분의 죄 없는 왕국]에 맞서 싸울 것이며, 어린양은 그들[죄의 왕국]을 이기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충성된 사람들도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4.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1) 이는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홀로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그가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니라.”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수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7) 어떤 조치가 승인되었나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완전한 선물의 척도이며, “신격의 모든 충만의 척도”(골로새서 2:9)입니다. 부여된 분량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20).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21). 또 이것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또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주어진 것을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직도 죄가 누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 때문입니다. 만일 죄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은혜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은혜는 죄인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작용하도록 허용되기만 하면 주어진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6).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고 영혼 안에서 그분께 동일한 자리를 주어 그들이 범한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불신앙이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무효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II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고린도전서 6:4-9: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 중에”;
“박탈 상태”;
"속눈썹에";
“감옥에서”;
“폭동 속에서”;
“작업 중”;
“철야에서”;
“금식 중에”;
“순결하게”;
"모르고";
“오래 참음으로”;
“친절하게”;
“성령 안에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정의의 무기로”;
“명예와 불명예를 위해”;
"악명 높은 평판과 좋은 보고를 위해";
“속이는 자요 진실한 자 같으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것”;
“우리가 죽을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느니라”;
“슬프지만 항상 행복해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아무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 은혜가 생명을 소유하고 주관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경험은 은혜로 이루어지며,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고, 우리를 건축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동역자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1.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4:15.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고린도후서 6장의 이전 목록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함께 작용하여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일은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두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 결과는 “각각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일단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분도 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사역을 헛되이 받았느냐? “범사에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칭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6:4.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믿음이 결핍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셔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다른 사람이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계획도 아니며, 심지어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계시한 사람의 일과 유사한 계획도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성취하도록 부르신 사명과 사역도 특별합니다. 어떤 교회 조직이나 가족도 당신의 부르심을 당신에게 밝힐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가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아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7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21.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이사야 53:6.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육신에 불법이 가득한 본성을 갖고 스스로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그분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분을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의 지식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육신, 곧 죄를 짊어진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육신처럼 약하고 유혹을 받는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하나님은 육신과 인간의 육신과 죄를 짊어진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시험과 시험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있는 곳마다 이 육신을 입고 자신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며,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그 완전한 형태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참된 신자 각 사람의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행함으로, 각 신자는 죄 있는 육신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9:13.

새 마음 - 옛 육체

회심은 옛 정신에 새 육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옛 육체 안에 새 영(새 마음)이 있느니라. 구원과 승리는 인성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신의 성품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집니다. 죄 있는 육신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육신에 있는 죄를 이기고 정죄하기 위해 죄 없는 영을 데려옴으로써 얻어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것과 같은 육체를 여러분 안에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졌던 것과 같은 느낌을 너희도 품으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5 성경은 육체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2.

우리는 육체가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같은 살과 피(우리의 죄 있는 육신과 똑같은 살), 곧 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니 이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십시오. 로마서 8:3.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로마서 7:25)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졌던 것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 주리니" 에스겔 36장 26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육체의 죄됨을 점점 더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바리새주의의 독선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로마서 2:11; 골로새서 3:25. 그들의 삶은 불의, 압박, 악의, 시기, 분쟁, 경쟁, 수군수군, 위선, 악독, 자랑, 율법을 범함, 하나님을 욕되게 함, 살인이 가득한 마음, 방언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의 피 때문에 큰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염"될까 봐 로마 궁정의 문턱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안식일만큼 열심이지만, 배신적인 간첩 활동과 암살 음모에 신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짐승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래의 소음을 내게서 멀리 하라. 나는 너희 수금의 선율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영원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모스 5:21-24. 그리고 유다에게도 거의 같은 말을 하여 그 곳을 “소돔”이라 부르고 유다 백성을 “고모라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의를 실천하고, 압제자를 꾸짖어라. 고아의 권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라.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 같이 되리라.”

이사야 1:16-18.

여호와께서는 절기와 대회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날을 정하셨으나 이제는 그것을 미워하시며 받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는 그들의 음악과 노래가 "시끄럽다"고 생각하여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신실한 청취자들에게 그 말씀이 스며드는 의의 표현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행동과 노래에 나타난 생명/사랑, 믿음, 예배의 관계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형식주의는 속이는 것이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식주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마음을 냉철한 형식주의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보다 형식과 전통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고안한 수만 가지의 발명품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삶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참된 칭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고행, 순례, 전통, 미세한 구별, 광신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 곧 싸움과 분쟁과 위선과 불법과 박해와 간첩과 배반과 모든 악한 일로 드러나느니라. 이것은 교황권에 의해 여러 교회에 도입된 전통입니다. 형식과 아름다운 의식, 교만과 지적인 오만함(신앙이 없는 신학 박사 학위)이 사랑과 믿음을 대신하고, 자신과 자신의 의를 “축하”하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눈.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날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경하고, 불만을 품고, 무자비하고, 중상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잔인하고, 선한 것을 원수하고, 배반하고, 담대하고,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양이 있는 자라 그러나 경건함은 그 힘을 부인합니다. 이것도 피하세요.” 디모데후서 3:1-5. 오늘날의 형식주의에서 거부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1 유대인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나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선지자 없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39, 40.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즉 스스로 성경을 실천함으로써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니라. 그리고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듯이 그분 없이는 성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11, 12. 성경 공부에 의한 구원, 기도에 의한 구원, 방언에 의한 구원 등 모든 형태의 "행위에 의한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성경이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언의 영"이신 "예수의 증거"를 배척하는 자들을 성경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류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불의를 기뻐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0-12.

8장 -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아브라함이 할례의 인을 받은 것은 믿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의 언약이요 의의 인으로 인치신 것이요, 그 유업은 의의 유업이라 의인 외에는 아무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영원한 소유"였습니다. 창세기 17:8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13. 진화론을 통해 모세의 창조 기록을 무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의를 불어넣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그 불변의 약속은 불변의 맹세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이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보좌와 존재가 이에 대한 증인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50:5 여기서 언급된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콘서트의 보증인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한 가지, 곧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20.

아브라함은 약속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들 자신의 힘이 없어도 그들을 위해 의를 이루는 그분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럼? “이로써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4.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 그들을 믿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 것이니 너희 죄는 용서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어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누가 원하는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사람은 말하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17.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20.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져가서 축복의 대가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율법에 합당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정의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느냐?” 야고보서 2:20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봅니다. 사실, 행함으로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 22. 행함은 믿음의 전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영광은 그분께 속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평화는 전쟁, 분쟁, 경쟁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거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행위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평안을 추종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15.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7.

무조건적인 복종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시편 119:165. “아! 네가 내 계명을 들었더라면! 그리하면 네 평안이 강과 같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
이사야 48:1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8.
그러므로 그분의 평화는 강물이 계속 흐르고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이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그 느낌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평화의 조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함

"또한 그(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이 은혜(과분한 용서와 호의)에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자" 로마서 5장 2절. 만일 우리가 금생에서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세에서도 기뻐할 소망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기뻐하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1:28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베드로전서 1:9.

미래에 사람들을 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 사람들을 죄 없는 조화 속에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면 미래에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마태복음 1:21)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날 무한합니다! "그분은 (오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21.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25.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뒷받침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서 3:16.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 삶의 환난과 돌봄!

"우리는 또한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5:3 환난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조바심을 불러일으키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너희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5:22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짐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짐을 져 주십니다. 크고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순교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입에 올리며 경기장과 기둥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13, 14; 4:13),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3 지금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의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의 때를 기쁨으로 넘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동기만 작용해야 하며, 그것은 그들이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십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 평화와 빛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일하고 참된 도움이 됩니다. 많은 기도를 통해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에 먼저 물을 주어 땅이 생육하고 움이나게 하여 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거기로 돌아오지 아니함 같이 말씀도 그러하리라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니라. 그것은 빈손으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정한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땅은 하늘에서 비나 눈을 통해 내려오는 습기에 의해서만 식물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비가 없는 땅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은 여호와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푸르르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은 그분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서 3:16.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여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 또한 내 안에서 효율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골로새서 1:29 믿음으로 말씀이 성취된 줄로 여기라. 사람의 말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역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느니라." 시편 33:9.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에서 났느니라." 히브리서 11:3.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영과 창조의 능력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에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녀는 그것을 할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행 13:26. "이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서 너희를 유업으로 주실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0:32.

백부장은 예수께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8 백부장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 . "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23. 장교는 "주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요한복음 4:49. 이 믿음(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 .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요한복음 4:50.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10, 누가복음 7:9.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8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으로 죄로부터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말로 당신은 깨끗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 .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3, 4.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2, 3; 누가복음 5:12, 13. 오늘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 ."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3 이 구절이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까? 여기서 "의무가 있다"는 표현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전혀 갚을 수 없고, 부서지고 멸망당하며, "죄의 삯", 곧 "사망"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믿고 받아보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풍성하고 흰 옷을 지어 입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18.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니라? "별말씀을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별말씀을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 순종하게 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종이 되는 줄을 모르느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고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된 후에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15-18.

9 -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려 싸우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18.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은 성령의 생각, 곧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느니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7:25.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인도를 받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여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죄의 법을 섬기므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사망에 속한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로마서 8:13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에는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와 함께 여전히 함께 있으며 이 육신이 싸우고 있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시됩니다. 성령으로.

“회심한” 사람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동일한 죄악 경향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더 이상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와 그 경향과 욕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이제 성령에 복종합니다. 이제 그는 모든 선호와 욕망을 지닌 죄 많은 육신을 이기고, 정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통제하는 힘에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13. “그러므로 너희 땅에 속한 육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죽이라. 이는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5 이 모든 것이 육신에 포함되어 있으며 육신이 왕노릇하면 살아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육신 자체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게 되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뿌리째 죽임을 당하고 그리하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롬 7:14). 그는 선한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권세에 지배되어 자기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7:19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려 하되 악의 법이 내 속에 거하는 법을 발견하였노라.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은 육신 곧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권세는 여전히 그를 속박하고 육체의 지배, 곧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입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끝이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이지 허공에 일격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9:26. 그 싸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종으로 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2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과 육체와 그 선호와 쾌락에 맞서 싸워 그것을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의 권세와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문자 그대로 "눈 밑을 때리려면 얼굴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때리고 때리세요." “나는 허공에 펀치를 날리는 복서처럼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상하게 하여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육체의 권세와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굴복하면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능력을 통해 육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은 육체가 지배적이고 인간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지배하는 사람과 복종하는 육체를 계시합니다. 이 축복받은 상황의 역전은 회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과 그 모든 죄된 애정과 욕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싸움에서 육체의 애정과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디모데전서 6:12.

사람이 육신에서 완전히 해방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악한 경향과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음으로써입니다.
인간은 유혹의 영역에서 구출됨으로써 성품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실제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현장에서, 그들이 있는 바로 그 곳에서 능력을 받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13; 누가복음 11:4.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33.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5.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1.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2:26.

사람이 육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느니라. 만일 인간이 모든 유혹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고, 유혹이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방으로는 결코 인간의 인격이 발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계신 곳인 육신에서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대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있던 곳에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그 모든 성향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가져오신 신성한 능력으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고, 이를 통해 인간을 육신의 권세와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인간에게 신성한 능력을 가져오는 신성한 믿음을 모든 인류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계시고 그에게 육체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을 주소서. 예수께서는 이 육체가 받는 모든 시험에 직면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그는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축복받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모든 영혼은 이 승리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12.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Review and Herald, 1900년 9월 18일.

죄가 육체로 정죄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에 반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자랑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데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5:22-26. 정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한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육신과 싸우시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어 "육체의 일"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21; 고린도전서 6:9 참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욕과 욕망과 육체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혼이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투는 모든 지점에서 벌어졌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람들과 동일한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15 만일 이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이 아니셨다면, 그 시점에 그분은 결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시험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망과 성향을 느끼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시험을 받나니 그것이 그를 끌어 꾀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14.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잉태되고, 욕망이 품어지고, 성향이 승인될 때에만 죄가 생겨납니다.

예수께서는 생각에 있어서도 결코 욕망을 품지 않으셨고 육체의 성향을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의 흔적은 없으시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 육신에 모든 시험을 막으셨느니라 육체의 모든 욕망을 뿌리부터 효과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으니 곧 죄에 관하여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로마서 8:3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해 그분을 지키실 수 있는 완전한 승리와 신성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완전하게 발전시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성취되고 유지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4.

그분은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원수 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하나님과 사람이 그분에게서 분리됨),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15 그분은 "육체로 원수 된 것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즉 원수 된 모든 인류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16 적의는 "그의 육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육신으로" 그분은 그것을 파괴하고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심으로써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이 저주가 인류에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주를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지 못하느니라"
(잠언 26:2)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러한 저주를 받으시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뜻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고린도후서 5:21.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나 그분께서는 심지어 생각에서도 육체의 어떤 경향이나 성향도 허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각은 신적 믿음을 통해 인류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이것들에 함께 속하셨으니 이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저희를 모두 구원하려 하심이라. 죽어서 평생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천사들을 돕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야 할찌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14-18.

그리스도께서 인간 육체에 이루신 이 승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인간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에 의해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가 신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런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여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하여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16-19.

오늘날 죄와 그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거의 2,000년 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히브리서 13:8),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계시록 14:6)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마태복음 1:2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니라"(마태복음 1:21)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죄 있는 육신")이시며 그는 "위로자를 받아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영원히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 17).

이 복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입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와 우리의 죄성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셨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1:4, 6. 그분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는 복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아래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육체의 일' 대신 '영'이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19.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증오나 그 어떤 표현도 허용되는 대신에, 심지어 생각 속에서도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그에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단순한 일을 좋아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랑한다는 사실; 그는 단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그것이 전부라면 그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 - 현재와 미래의 선에서 파생되는 열렬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항상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희의 만족"을 나타냅니다.

평화 – 마음을 다스리는 완전한 평화 –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이해력"과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전"합니다.
장수, 친절, 믿음 - 이 믿음(그리스어로 피스티스)은 확고한 확신입니다. 지식이 아닌 신뢰에 기초한 확신(머리가 아닌 "마음"의 믿음, 신조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이를 고수하며 반대되는 모순을 거부합니다.

온화함, 절제 - 절제는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정욕과 욕망과 죄악된 습관의 굴복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운 사람,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아무 것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에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 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는 영원한 진리를 단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4:23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자" 갈라디아서 5:25.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므로 "자랑에 사로잡혀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5:26.

10 - 완벽해지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적인 원칙을 제쳐두고 완전한 것을 향해 인도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합시다." 히브리서 6:1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이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27, 28. 우리는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함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단어가 당신과 내가 완벽함에 도달해야 한다는 개념을 전달한다는 것이 확립되면, 당신과 내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것은 형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함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말자 이는 각 사람에게 확정되어 영원히 정한 것이니라 그것을 얻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바로 거기 서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이 있기를 항상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유전율의 입자로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함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것에 대해 변명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위대하시거나 그분처럼 전능하시거나 전지하심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의 완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오직 우리 자신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소유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이며 우리가 항상 그 표준을 고수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과 나를 위한 것임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함. 이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안전하다.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 각자는 그곳에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내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고 거기서 각각 그 표준으로 평가를 받기로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7:31.

내 존재 방식은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유일한 표준이다.
유한한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기준을 측량할 수 없다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와 다투면 천 가지 중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시리라... 전능자의 능력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다. 정의의 경우: 누가 내 말을 인용할 것인가?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나는 흠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 내 영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가 눈 물로 몸을 씻고 부식제로 손을 정결케 해도 너희는 나를 진흙 속에 빠지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예요." 욥기 9:19-21, 30, 31. 그렇다면 완전함은 우리 스스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영원히 버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며 그것을 위한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우리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함, 그분의 성품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비슷한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성품 자체가 우리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흠이 없는 자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요 만물이 존재하는 까닭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지금 당장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외인이 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19-22.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 목적에서 완전히 제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원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견디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리스도인 완전성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그것을 성취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그를 전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수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그가 땅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리셨던 그가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이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4:7-13.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우리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성도의 온전함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들의 높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죄로 인해 좌절되었을 때,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모든 신자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티 없으신 자로서 그 영광 앞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나라와 주권을 만유 앞에 나타내시리라 시대와 지금, 그리고 모든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24, 25.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흠 없는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그때나 앞으로도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했을 때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은혜가 지배할 때, 잘못된 일을 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은혜가 왕노릇할 때, 은혜가 죄를 대적하여 왕노릇하고 죄의 모든 권세를 쫓아냅니다.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별말씀을요". "절대 안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의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죽는다는 것은 매장을 수반한다.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알거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앞에는 로드맵이 놓여 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 "이는 죄의 몸을 멸하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멸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죄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멸망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합니까? 당신은 멸망을 선택하고 죄에서 벗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죄와 멸망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탈출하기 위해 파멸을 피하고 싶은 사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파괴, 파괴를 만난다. 멸망을 선택한 자는 멸망을 면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멸망의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고 그것을 영원한 소유로 자기 손에 쥐는 사람은 결코 이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실 것입니까? 지금; 유일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환 결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십자가에 못 박히심, 멸망,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음.
죄에 대한 죽음, 세례의 상징인 장사, 새 생명으로의 부활, 새로운 탄생.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7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가 죽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로마서 6:8 로마서 6장의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는 앞으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일곱째는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덟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그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분은 의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사십니까? 로마서 6:1, 2, 6, 7, 8, 9, 10, 11, 12, 13, 14절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완벽을 향해 가자." 한때 죄 가운데 죽으신("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곧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 당신은 사탄의 종이다. 종은 섬겨야 합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18.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셨고, 그렇습니다! 정의의 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서 면제되었느니라." 로마서 6:20.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침내는 영생이라." 로마서 6:22.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로 시작됩니다. 다음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로 앞에 정의의 종들이여; 그다음 거룩함; 그러면 영생. 이것이 그리스도인 완전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죄의 몸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 정의의 봉사; 거룩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 있는 육신, 즉 자기와 나의 육신으로 이 죄의 세상에 들어가신 길, 그분이 온전함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따르셨던 길은 우리를 위해 확립된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즉, 그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반대됩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아계신 분, 생명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원부터 나실 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거듭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셨고, 이로써 우리는 하늘과 의와 하나님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지날 정도로 자라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3.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10; 5:8, 9.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인간 육체의 완전성에 도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육체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하는 곳은 고통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항상 완전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완벽함이 유일한 척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다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모든 교훈의 풍조와 사람의 궤계와 간사함으로 오류에 빠지게 하는 풍조에 밀려 다니느니라.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갑시다.” 에베소서 4:14-16.

성장은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생명은 새로 태어날 때 사람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심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심겨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장은 완벽하다. 비록 벼 이삭이 아니더라도, 이삭 전체가 아니더라도 새싹은 완벽하고, 완전히 발달하고 튼튼합니다. 그 성장 속도에 따르면, 성장이 완료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완전하며, 성숙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과 관련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대로 완벽합니다. 거듭난 새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씨(하나님의 말씀)는 자라서 그 종류대로 씨를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그날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전하라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이 일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육신으로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날에 이 신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십사만 사천 명에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12.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온전한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을 향해 전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졌던 흔들리는 기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유일한 기초는 거룩함을 향한 정의의 봉사이고, 결국에는 영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을 직면하고 심판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힘과 멸망에 굴복하는 모든 영혼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길에 따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의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뿐이겠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은 하나님의 척도이시요 그의 기준이시며 그리스도가 패러다임이시며 그의 일은 언제나, 모든 일에, 어디서나, 영원히!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Review and Herald, 1899년 7월 18일 및 25일, 8월 1일.

요청@ministerio4anjos.com.br

또한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advertencia inal.com.br

최후의 경고 사역 책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 왜거너
용서의 힘 - 왜고너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 왜고너
종교의 자유 - 존스
좋은 소식 – 왜고너
그리스도인 완전성을 향한 성스러운 길 – 존스

다니엘 12 – 1260, 1290, 1335일 – 하이로 카르발료
여덟 번째 - 하이로 카르발료
종말에 대한 일곱 가지 경고 - 하이로 카르발료
미래를 밝히는 묵시록 - Jairo Carvalho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 하이로 카르발료